

‘전주 MICE 복합단지’ 성장거점 조성 탄력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 투자선도지구 거점육성형 부문 선정

전주시가 지방 강소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전주 마이스 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주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지구(12만 1,231㎡)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서 투자선도지구 거점육성형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성장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통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기업 등 투자유치를 통해 지방 강소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선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축·용적률 완화와 인허가의제 등 규제 특례 73종과 관광개발진흥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 인프라 개선



전주 MICE 복합단지 조감도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서 전주 마이스 복합단지는 전주의 동·서축 도로축과 남·북축 도로축이 만나는 점주 중심부에 위치한다. 인근에 전주역과 고속버스터미널, 고속도로 IC 등이 위치해있어 도시간 환승·연계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러한 교통인프라를 중심

으로 교통시설과 사업 타당성, 민자유치 등 지역활성화 거점 조성을 통한 지방 강소도시 육성에 유리한 거점지역으로 인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마이스 복합단지와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전주천 등 특화거리조성과 보행환경 개선 등 연계성을 강화해 마이스 복합단지 기능을 더욱 다양화하고, 민간투

자가 증대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옛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들어서는 전주 마이스 복합단지는 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시립미술관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G-Town, 호텔 및 백화점 등 문화·관광·쇼핑·숙박·창업 등이 집적된 글로벌 복합단지로, 약 1조 500억 원의 재정과 민간자본이 투입돼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마이스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전주의 성장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각종 특례를 활용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관련 국비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마이스 복합단지 주변 인프라를 개선하고, 전주가 글로벌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지역 경제 이끌 유망 창업가 발굴

전주시·오렌지플래닛, 10월 ‘전주창업경진대회’ 개최

전주시가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과 손잡고 올해도 유망 창업가를 발굴하고 성장을 돕는 창업경진대회를 연다.

시와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10월 30일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유망 창업가 발굴을 위한 ‘제7회 전주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시와 재단은 14일부터 9월 8일까지 45세 미만 창업가를 대상으로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분야와 업력에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된 5개 팀은 당일 현장 발표를 통해 순위가 결정된다.

본선 진출팀에게는 △대상(1팀) 1000만 원 △최우수상(1팀) 500만 원 △우수상(1팀) 300만 원 △장려상(2팀) 1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 입주와 더불어 1년간의

특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시와 재단은 이번 제7회 전주창업경진대회에서 선발된 5개 팀을 비롯해 그간 함께 발굴·육성해 온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성장 고도화를 위한 후속 지원책을 연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최종 선발된 5개 팀은 현장 발표를 통해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한 지역 투자자들의 후속 투자에 대한 검토를 적극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번 선발된 스타트업과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의 총동문사를 대상으로 전북지역대학원 합기술자주회사와 함께 하반기 중소벤처부의 틱스 프로그램에 추천할 스타트업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시는 재단과의 협업 및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의 혁신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권희성 기자

세계 최초 드론축구 전용경기장 완공 앞뒤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 조성… 9월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앞두고 마무리 작업 한창

세계 최초 드론축구 전용경기장인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주가 국제 드론스포츠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조성 중인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에 대한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오는 9월로 예정된 ‘2025 전주드론축구 월드컵(FIFA World Cup Jeonju 2025)’



개최를 앞두고 내부 시설 점검과 마무리

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덕진구 혁신로 일원에 조성된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146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3380㎡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다가오는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의 주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센터는 관람석 934석 규모의 드론축구 전용경기장과 선수대기실, 경기운

영실 등 전문 경기 공간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1층 전시실에는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볼 개발 과정과 경기 규칙, 전주에서 시작된 드론 축구의 역사, 국가대표팀 유니폼 등이 전시될 예정으로, 내부 마감 공사를 거쳐 일반 관람객에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내부 시설물 점검과 전시물 배치, 장비 설치 등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한 후 이곳을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의 공식 경기장으로 활용기로 했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 매뉴얼을 점검하고,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내년 7월 센터를 정식 개관한다는 구상이다. /권희성 기자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전주시보건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대비 선제 대응

최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주시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감염관리 지도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 연속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 수(3306명)의 59.8%(197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소는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내 코로나19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집단감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총괄적 감염관리를 시행한다.

또한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권고하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실내 환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는 작년도도 여름철 유행이 있었다”면서 “감염취약시설 관리 등을 통해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고위험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안전 점검

전주시는 8월 한 달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11곳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은 익산지방국도관리청 산하 국토안전관리원(호남지역본부)과 전주시 건축과, 덕진구청·완산구청 건축과 등 공무원과 건축·토목·전기·안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점검 항목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확인 및 정기 안전 점검 여부 △가설 구조물 안전관리(비계·거푸집·동바리·흙막이 등 설치 상태 및 변형 여부) △건설기계 점검 및 운용 확인(타워·이동식 크레인, 천공/항타기 등) △뚫질관리 등으로, 시는 현장별 특성에 맞춰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험 요소가 확인될 경우 보강 조치 및 정밀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도심 내 방치된 빈집 집중 방역 나서



된 3개 반을 투입해 총 1739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가 여름철 위생 해충의 번식을 차단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도심 내 방치된 빈집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 활동에 돌입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기 쉬운 빈집 밀집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선제적인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를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기동반(4명)과 동 방역반(4명), 초미립 연무소독반(10명) 등 총 58명으로 구성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의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